

# 국내 최초 저음 현악기 앙상블 공연

전주한벽문화관, 19일 바이올린 없는 현악 사중주 '로워-스트링 콰르텟' 무대 올라

전주문화재단 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이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내 최초 저음 현악기 앙상블 '로워-스트링 콰르텟'의 공연을 한벽공연장에 올린다.

로워-스트링 콰르텟은 '현 시대를 대변하는 사중주단'을 목표로 2019년 창단되었으며, 클래식 현대음악 기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색채감과 뉘앙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현악기로 전자악기, 타악기 소리를 표방하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며, 첫 공연부터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클럼M의 비올리스트이자 클래식앙상블의 예술감독인 비올리스트 이신규를 필두로, 독일 쾰른음대 출신으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 중인 비올리스트 노원민, 풍부한 음악적 상상력과 타고난 재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첼리스트 이경준, 베이스리스트로서 독보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조용우가 모여 탄생한 이 사중주단은 바로크, 클래식, 탱고, 그리고 록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새롭게 편곡하여 그들의 신선한 호흡으로 관객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선, 클래식은 물론 탱고음악과 대중음악 등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곡의 이해를 돕는 해설과 함께 약 70여 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윌리엄 볼리의 '우



'로워-스트링 콰르텟' 포스터

아한 유흥'을 비롯하여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중 기사들의 춤', 코렐리 '라 폴리아', 슈베르트 '마왕' 등 강렬하면서도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로워-스트링 콰르텟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편곡된 B.T.S.의 'Black Swan' 외 피아졸라의

곡들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철민 전주한벽문화관장은 "전주를 대표하는 브런치 콘서트인 우수작품시리즈가 이번 달엔 신선한 매력의 현악 앙상블 무대로 관객들과 함께 한다. CCMF Concerto Competition, 멘델스존 펠로우쉽, 클라이페다 국제 첼로 콩쿠르 등 개인 수상이력도 화려한, 최고의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로워-스트링 콰르텟은 그간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들로 관객분들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 (재)전주문화재단 한벽문화관 우수작품시리즈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의 공연이 관객들과 함께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최된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공연은 전석 매진되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는 한벽문화관의 대표 미터네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티켓 가격은 전석 2만원이며 인터파크에서 예약할 수 있다. 전주시민, 공연 재관람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및 학생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jcf.or.kr), 전주한벽문화관(h.or.kr) 누리집이나 전화(063-280-7040)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대중음악 3대 전설 명곡 뮤지컬과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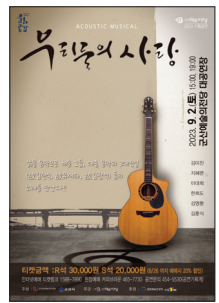
군산시예술의전당, 故김광석·故유재하·故김현식 음악 라이브 연주

군산시예술의전당이 오는 9월 2일 오후 3시와 7시 뮤지컬 '우리들의 사랑' 공연을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대중음악의 3대 전설이라 불리는 故김광석, 故유재하, 故김현식의 주옥같은 음악들을 전곡 라이브 연주로 진행하며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극적 요소를 첨가해 보는 재미와 위트가 더해진 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싱어송라이터(singer-songwriter)를 꿈꾸는 뮤지션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천국에 있는 故김광석, 故유재하, 故김현식을 만나 음악과 삶을 이야기하며 현실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꿈의 가치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국비공모사업 선정으로 진행되는 '뮤지컬 우리들의 사랑'은 군산시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공연이다.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 티켓 가격이 저렴하게 산정돼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며 오는 2일까지 예매 시에는 조기할인 2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한다.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 예술의전당홈페이지(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문화예술 분야 상생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익산시, '전북의 국보·보물 산책' 추진

도내 지정된 6개 박물관 스탬프 투어 완료 시 선착순 굿즈 증정

익산시에서 전북도의 문화유산을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시는 전라북도도와 함께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을 기념해 전북도의 문화유산 가치를 조명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문화유산을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이달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간 '전북의 국보·보물 산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백제왕궁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원광대학교박물관, 정읍시립박물관, 김제 금산사 성보박물관 6개 박물관이 연계하여 진행되며 '스탬프 투어', '전북의 국보·보물 골든벨', '기획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스탬프 투어는 전라북도 내 지정된 6개의 박물관에 비치된 스탬프를 모두 찍어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 개수(3개, 6개)를 찍으면 매일 선착순으로 전북의 국보·보물 굿즈를 증정한다.



또한, 스탬프 투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지식과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도전! 전북의 국보·보물 골든벨' 퀴즈대회도 열린다.

퀴즈대회는 10월중 백제왕궁박물관에서 진행되며 특집방송으로 전주MBC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된다. 대회의 참여는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고 프로그램의 알림에 따라 인증하는 초·중·고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주어진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정읍시예술회관 우수작 초청공연

'베토벤 × 클림트 운명의 키스' 개최

정읍시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앙상블 스피리토와 함께 하는 '베토벤 × 클림트 운명의 키스' 공연을 개최한다.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공모 선정된 이번 작품은 미디어아트로 펼쳐지는 베토벤 프리즈를 비롯해 키스, 생명의 나무 등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화와 교향곡 9번 합창, 월광, 엘리제를 위하여 등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명곡의 운명적인 만남이다.

공연은 베토벤 역에 김경희, 클림트 역에 김재민이 연기를 통해 스토리를 이끌고 피아노에 심근수, 팬텀싱어 시즌3의 준우승팀 라비던스 멤버 베이스 김바울, 매력적인 첼로의 소리로 사랑받고 있는 첼리스트 첼로택(조윤경)의 수준 높은 연주가 어우러져 불인감 있는 감동을 선사한다.

관람료는 1만 5000원이며, 정읍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14일 오후 2시부터 1인당 4매까지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전북대-전북문화관광재단, '맞손'

문화예술 지역 상생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과 문화예술 분야 상생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양오봉 총장과 이경운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북대와 도내 공공기관, 다중이용 공간의 내·외부 시설을 통해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내 미술 작품 대여 전시와 창작물 유통·판매 등 미술 활성화 사업 전반에 관한

협력,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상생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 도서관을 비롯한 지역 내 공공기관, 다중이용 공간에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게 돼 지역 예술작가들에게 새로운 전시·유통 환경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전북대가 지향하는 지역 상생 발전을 주도하는 플러그인 대학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지역 예술인 발굴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북대가 거점대학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끌어 글로벌대학으로 한 발 더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